

경기도무형문화재

제55호

동두천민요





동두천민요(2013. 12. 31 지정)는 농요 총12종목(모내는 소리, 애벌논매는 소리, 두벌논매는 소리, 세벌논매는 소리, 물까부리, 백중놀이, 옛날상여소리, 근대상여소리, 달고질소리, 지경단이소리, 새쫓는소리, 잣은상여소리)으로 구성되며 동두천(옛 이담면)에서 두레꾼들이 여기저기 모내고 논매며 힘들던 농사일에 흥을 돋우어 시름을 달래기도 하고 협동심을 불려일으키는 소리로 전통적인 경기도 북부의 전형적인 민속놀이와 민요의 사례이다.

현재 동두천민요 보존회(회장 김순희)가 계승하고 있으며, 매년 10월에 정기 발표회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다.





▼ 모내기철 비가오지 않아 몹시 가물면 첫 아들을 난 재수 좋은 동네 아낙들이 키를 가지고 시냇물에 나가 천지신명님께 물까부리비나리하는 모습







▮ 2017년 5월 19일 제10회 권농일행사(시민모내기 대회)



▮ 두벌 논매기 후 기념촬영



▮ 제10회 권농일행사 황새 두 마리 결혼식



▶ 제10회 권농일행사(시민모내기허수아비우아힐힐) 허수아비제작

시민모내기대회 1등, 2등, 3등 상금 ▶



동두천민요의 달고질소리



동두천민요보존회 제9회 정기공연(소요산, 2013. 10. 26.)

동두천옛소리의 하나로서 일명 달고질소리라 부르는 회단이소리가 있다. 달고질소리는 한곡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4-5곡을 연속으로 부른다. 실제 달고질 다질 때는 3켜나 5켜 등 홀수로 다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호상일 경우에는 마지막 켜를 다질 때 상주들이 주변에 수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니나노 방아타령을 부르며 슬픔을 기쁨으로 달래기도 한다. 달고질소리에서 모든 소리의 마무리는 새날리는 소리로 한다.



▶ 동두천 향토유적 1호 지정 기념행사(2008)

제12차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 ▶





- 2004년 7월 15일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창립
회장 : 이채혁
- 2008년 6월 5일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제1호 지정
단체명 : 동두내옛소리보존회
- 2009년 물까부리 소리 발굴
- 2009년 9월 5일 경기민속예술축제 대상 수상
소리 : 두레소리, 물까부리
- 2011년 10월 9일 한국민속예술제 금상 수상
소리 : 두레소리, 물까부리
- 2013년 12월 31일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5호 지정
단체명 : 동두천민요보존회로 명칭 변경
- 2015년 빠른모내는소리(뽕뽕이모) 발굴
- 2016년 3월 24일 김순희 회장 취임



옛날에는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지행리 사당골 마을, 지금은 경기도 동두천시 사당골마을에 사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각 마을마다 7~8명씩 조직되어 있는 것을 ‘두레’라 하였다.

모를 낼 때가 되어도 날이 몹시 가물고 비가 오지않아 모를 낼 수가 없으면 마을에 첫 아들을 낳은 아낙네들이 키를 가지고 시냇물에 나가 물 까부리 비나리소리를 하여 천지신명님께서 비를 내려주도록 한다.

휘나기소리를 하면서 모를 내고, 농부들이 긴방아타령을 부르면서 애를 매고, 잣은방아타령을 하며 두벌논을 맨다. 이렇게 바쁜 일손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7월 백중이 된다. 우리 고장에서는 백중날이면 호미를 씻어둔다고 해서 호미씨세라 이름하고 마을 사람들이 큰 놀이인 백중놀이를 한다. 이때에 마을 복판에 우뚝 서 있는 천년이 넘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올 농사가 풍년 들기를 기원하며 사당골 마을 농악에 맞추어 신명나게 해 지는 줄 모른다.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112-13
연락처 : 031-863-8410